

○ 학생생활문화원



● 왼쪽부터 임선영 상담사, 김윤희 상담사, 최윤영 교수, 이숙진 조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3층.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멋스러운 나무무늬 프린트 벽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작년 8월에 개원한 인문대 학생생활문화원이다. 이번 호 인문대 사람들에서는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인문대 학생들의 친절한 상담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곳에서 학생생활문화원장 최윤영 교수와 김윤희 전문상담사를 만났다(임선영 상담사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다).

학생생활문화원은 학생들의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과 미래 설계에 대한 고민 해결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심리상담센터와 경력개발센터로 나누어져, 개인 심리상담과 심리검사 이외에도 멘토링, 경력개발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학생생활문화원장 최윤영 교수를 비롯하여 전문상담사 2명과 대학원생 조교 1명, 봉사장학생 2명이 번갈아가며 상주하고 있다. 307호 문을 열자 벽에 걸린 파울 클레 그림과 커피메이커와 핸드폰이 놓여있는 탁자가 보인다.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충전시켜주는 Free charge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무료로 커피도 주고요.” 인자하게 웃는 얼굴이 인상적인 학생생활문화원장 최윤영 교수는 학생생활문화원이 생기면서부터 이곳을 담당하고 있다. 1993년 독일 본(Bonn)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2003년부터 독문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최윤영 교수는 특유의 추진력과 통솔력으로 학생생활문화원의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남인 선생님(전 학생부학장)께서 이 자리를 권하셨어요.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더 보람 있죠.”

이곳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인문대 학생들의 특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문대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진로지도, 경력개발, 리더십교육, 심리상담이 이루어진다. “인문대 학생들은 고민이 많은 편이라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문학이나 역사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 감수성도 풍부하고 섬세하거든요. 같은 고민이라도 다른 단과 대학 학생들에 비해 일찍 시작하고 깊이 고민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로가 다양하다보니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 편이구요.”

‘내 마음의 휴식처’라는 타이틀의 개인 심리 상담은 우울증과 같은 다소 심각한 문제는 물론, 공부 방법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민도 상담사와 일대일로 이야기하며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신

청하거나 심리검사 후 연계하여 상담을 하게 된다. “여기에 와본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을 아니까 꾸준히 와요.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잘 몰라서 안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을 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한편 ‘내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이름의 심리검사는 학생들에게 꽤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은 학생들이 친구들과거리 와서 재미삼아 성격검사나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긍정적인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곳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10여 분 후 수업 강의 때문에 자리를 비웠던 김윤희 전문상담사가 들어왔다. 최윤영 교수가 ‘학생들에게 정말 잘해주는 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김윤희 상담사는 상담 경력 8년차의 베테랑이다. 본교 심리학과에서 임상상담심리학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는데, 학생생활문화원에 오기 전에는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학생생활연구실에서 근무했다고. 공대 학생과 인문대 학생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냐는 질문에 김윤희 상담사는 심리상담이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에 있어 인문대학생이 공대 학생보다 더 개방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공대 학생들과 인문대 학생들은 확실히 문제 유형도 다른 것 같아요. 공대 학생들이 주로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인문대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인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그런지 대인 관계나 정서적인 문제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공대에서 근무하다가 학위 논문을 준비하려던 김윤희 상담사를 역시 이남인 교수가 직접 인문대로 ‘모셔왔다’. 덕분에 본인의 논문은 잠시 손을 놓고 있다고. “상담을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져요. 도움을 받고 상담 종결하는 학생들 보면 보람을 느끼죠”

학생생활문화원의 일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인문대 맞춤 멘토링, 인문대 만족도 조사, 경력개발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올해 2회째를 맞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총동창회와 연계하여 주로 인문대 출신 선배를 멘토로 모집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6개 직업군으로 나뉘어 조가 편성된다. “지금 멘토 23명이 멘티 30명을 맡고 있어요. 조별로 한 학기에 멘토를 2, 3번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한 조의 구성원들도 학년 배합을 적